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5월 24일 금요일 (음 4월 20일) 제229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젠더벨을 울려라!... 정답 맞추고 환호하는 시민들



23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제8회 젠더문화축제가 열린 가운데 '젠더벨을 울려라'에 참가한 시민들이 정답판을 들고 환호성을 외치고 있다. <관련기사 2면·5면>

## 농축산 미생물산업 '지역 먹거리'

송하진 도지사는 23일 시군 방문 여덟번째로 정읍시를 찾았다. 이날 송하진 지사는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와 (주)두손푸드를 방문해 관계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의 국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는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이하 미생물센터)를 찾아 센터의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미생물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미생물센터는 1만4854㎡, 연건평 6625㎡의 규모로 지하 1층과 지상 4층 건물로 입주기업 보육실과 연구실험실, 시험생산시설 등, 공동연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9월에 개소했다. 또한, 입주기업 보육시설(16개)을 갖추고 있어 농축산용 미생물 생산·제조 중소기업에게 입주공간과 다양한 미생물 제품의 생산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시험생산시설 등에는 10톤 및 1.5톤 규모의 발효조,

**전북 대도약 향한 시·군 방문·정읍 방안 논의... 두손푸드도 방문**

300kg급 동결건조기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농축산용 미생물 대량 배양조건 확립과 생산지원을 통해 영세한 규모의 산업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김대혁 센터장은 미생물증가프로젝트 시즌2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글로벌 시장 선도형 농축산용 복합미생물 개발을 위한 복합미생물 제조시스템을 구축하는 '복합미생물산업화 기반 구축사업'이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송 지사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벨리 조성을 통해 전북이 아시아 농생명산업의 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쌓아가고 있으며, 특히 2019년도를 미생



송하진 도지사가 23일 정읍시를 찾아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와 (주)두손푸드를 방문해 관계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물증가프로젝트 시즌2 원년으로 선포하고, 미생물산업 육성을 위해 전북도가 적극 노력해 나아가고 있다" 밝혔다. 송 지사는 고구마, 단호박을 활용한 고품질화식품인 '죽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주)두손푸드를 방문하여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특히, (주)두손푸드는 연간 25억원의

매출과 35명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향후 정읍지역 농가들과 원료 계약재배를 확대해 지역내에서 우수한 원료를 공급받아 지역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는 다음 시군 방문지로 오는 29일 부안군을 계획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 사립유치원 학부모 급식비 부담 해소

전북도교육청, 36억9100여만원 추경에 확보... 9월부터 지원

오는 9월부터 전북지역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이 해소된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급식비 36억9100여만원이 올 추경에서 확보되면서 2학기부터 도내 145개 사립유치원 원아 1만4397명에게 급식비가 지원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은 사립유치원의 급식 만족도를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높이고, 보편적 교육복지 정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목적이다. 급식비 지원단가는 1860~2540원으로 원아수에 따라 달리 지원되며,

올 하반기 지원일수는 115일로 책정했다. 2020년부터는 급식일수 230일 이내 사립유치원별 실제 급식일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부실급식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급식비는 식품비로만 편성하고, 유아학비에 포함된 급식비는 운영비로 편성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이 완전히 면제된다"면서, "사립유치원에서 급식 질 개선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초기철기시대 재발견 시동

전북도, 역사적 사실 고증 71개 유적 조사 연구용역 착수

전북도는 전북이 우리나라의 고대 국가 형성을 나타내는 철기문화의 先 보급지이자 초기철기문화 유적이 가장 밀집된 지역이라는 역사적 사실 고증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초기철기시대는 청동기시대에서 철기시대로 변화되는 전환기로 정치·문화·생활·공예·제사 등의 다양한 부분에서 역사적 특징이 뚜렷하다. 그간 이 시기에 관한 연구는 다른 시대의 비해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우리나라 초기철기시대는 기원전 3세기 초 위만에 의해 고조선의 왕위를 빼앗긴 준왕(準王)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고조선의 철기문화가 전북의 만경강과 동진강 일대의 청동기문화와 결합되어 한(韓, '한국(韓國)')이란 이때부터 불리게 되었음의 문화가 성립되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전환기로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추진되는 연구용역은 만경강과 동진강 수계를 기점으로 완주·전주·김제·익산·장수 등의 초기철기시대 유적을 조사해 전북이 초기철기시대 중심이었음을 증명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간 도로나 신도시 건설에 따른 시굴조사중 발견되어 부분적 조사만 이루어진 전북의 71개 초기철기시대 유적에 대한 철저한 고증

작업이 병행될 것으로 추측된다. 더불어 전북의 초기철기시대 유적이 소백산맥으로 이동하면서 영·호남 지역의 문화가 본격적으로 교류했고, 이로 인해 장수·남원·무주·임실·진안 등의 전북 동부지역에 가야문화가 자리잡게 되면서, 마한문화와 가야가 공존 융합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체계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판단된다. 6세기 전북은 마한과 가야 그리고 새롭게 팽창하는 백제의 문화가 공존하면서 다양한 문화가 꽃을 피웠고, 우리나라 역사중 매우 특이한 모습을 형성하고 있는바, 이 시기의 중요성을 더욱 진작시키기 위해 문화재청 국립유물문화재연구소가 조속히 개소되어야 한다는 당위성도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윤동욱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의 초기철기시대 문화는 우리나라의 철기문화 형성의 모태이자, 고대국가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준 문화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전북의 초기철기시대 문화를 기반으로 가야문화가 전개되면서 고조선-마한-가야로 이어지는 고대사의 핵심 연결고리를 찾는 의미있는 영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79 Btv ch.285 tv ch.253

#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TV

Dolm NAVER 전북뉴스

##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